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자치분권 · 지방자치 수호 다짐"

전주매일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음 8월 5일) 제33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올 추석 도민 부담 경감 '역점'

전북도 추석 민생안정 대책

임시공휴일 지정 따라 6일간의 연휴기간 감안 4개 분야 16개 과제 추진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저소득층 명절지원 추진 등 물가안정 · 민생회복 집중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가 추석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장바구니 부담 더는 풍요로운 명절과 서민 · 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18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은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긴 연휴기간을 감안,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폭염, 폭우,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과 누적된 고물가 · 고금리 영향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이지만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을 비롯해 귀성객들의 편의와 각종 재난재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도는 6일간의 긴 명절 연휴기간 동안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 운영과 추석 성수물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을 통해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청 주무과장 등 총 15명(총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으로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명절 핵심 성수품 20종을 중점관리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미 인상된 택시, 도시가스 요금을 제외한 지방공공요금 4종(시내버스, 상 · 하수도, 쓰레기 봉투)에 대해 14개 시군과 동결을 원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33개 협약기관과 합동 장보기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전, 환급행사 등을 홍보해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주요 전통시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주차 허용 구역(상시14개소, 한시1개소)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도내 우수상품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과 판촉행사를 열어 900여개 업체의 우수제품을 최대 30% 할인판매하는 등 지역 우수상품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우리주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함께 살피고,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명절지원사업, 취약계층 위문 격려 등 저소득층(2,660가구) 및 사회복지시설(359곳)를 대상으로 현금과 쌀, 위문물품 등 3억3,1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아동 가정(243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 돌보미 파견 활동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과 집중 자원봉사기간(9월 18~30일)을 정해 자원봉사자(400명)들과 전주, 익산, 정읍 등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명절음식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95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1,050억원을 맞춤 지원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등 체불 점검을 통해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도는 연휴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역에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속버스(1일 40대), 시외버스(1일 10대) 철도(1일 16회), 항공(1일 1편 4회) 등 총 86회를 늘려 운행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21곳을 지정 · 운영하고 문 여는 병 · 의원 362곳과 문여는 약국 549곳을 지정해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 재해 · 화재 등 각종 상황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비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제유가 상승, 누적된 고물가 · 고금리 여건 하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어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도민들께서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2~23일 '전북음식문화대전'

전북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맛의 고장 전북의 향토음식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토음식을 발굴 · 육성하고자 '제17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향토음식 · 웰빙음식 조리경연대회, 향토음식 전시 · 체험관 운영, 도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나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명절 전에 여는 행사임을 감안해 관람객들에게 도내 우수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마련할 계획으로 도내 농축수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원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비롯해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진 뒤 연구동을 둘러보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 본격

전북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전북TP 등과 이차전지 공동연구 필요 센터 구축 방안 등 논의

전북도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TP)와 함께 이차전지 등 전북 미래 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원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비롯해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연구원 주요 임원과 연구진, 도 이차전지반도체팀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4일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맺은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협약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연구 센터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는 새만금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등 초격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입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북을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가 절대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에 집적된 역량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조력을 받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협약을 이끌어내고 필요한 전략을 찾아나선 것이다.

연구원측에서도 이날 윤 원장을 비롯해 연구기획조정본부장과 청정신기술연구본부장,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 연구진들을 대거 참여시키며 기술역량 강화에 강한 협업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확보 등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센터 구축 방안 △새만금 입주기업 및 전북 주요기업 대상 세계적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미래이동수단용 차세대 리튬전고체전지 기술, 대용량 전력저장용 차세대 소듐이온전기 기술 등 초격차 기술 개발 연구현장에서 설계 및 공정 과정도 살피며 혁신기술의 미래 방향성도 내다봤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가속도를 붙이고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 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KIST 연구현장 방문을 통해 전북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연구 방향을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과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북의 혁신연구 역량을 배가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